



“Everything but showed nothing.”

-수년 뒤 이 사진을 본 로렌스 실러의 딸 스티븐스가 남긴 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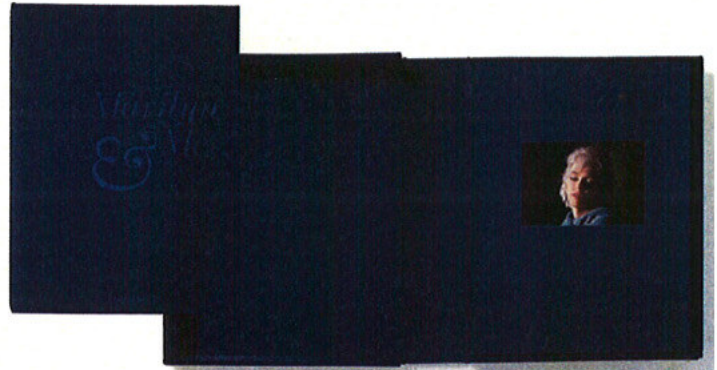
마릴린 먼로와 로렌스 실러의 관계

사진작가 로렌스 실러가 먼로를 보고 처음 건넨 말이다. 이 당돌한 초짜 사진작가에게 먼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. “건방지게 굴지 마세요, 사진작가는 언제든 교체될 수 있으니까요.” 1962년 당시 실러는 25세였고 잡지 <파리스 매지>의 어시스턴트였다. 그는 영화 <사랑을 합시다> 세트장에서 먼로와 마주친 적은 있지만 미완성으로 남은 그녀의 마지막 영화 <사랑할 때 버려야 할 것들>을 위한 먼로의 수영장 누드 촬영을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. 실러는 먼로의 사진으로 <라이프>지의 표지를 장식하게 된다.

1962년 36세

영화 <사랑할 때 버려야 할 것들> 수영장 촬영 중 마릴린 먼로

© Lawrence Schiller / Courtesy of TASCHEN and Steven Kasher Gallery, 1962



초짜 사진작가와 당대 최고 여배우의 만남

Marilyn & Me

마릴린 앤 미

저자 로렌스 실러 출판사 Taschen 언어 영어

구성 29 x 39.5cm, 210페이지, 컬러 에디션 1000달러, 아트 에디션 2000달러

〈마릴린 앤 미〉는 그녀가 내리막길을 걷기 전, 초짜 사진작가가 성공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. 먼로가 사망한 지 50년이 지난 올해, 타셴 출판사는 먼로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그녀의 사망 연도에 해당하는 1962권만 한정판으로 출간했다. 실러의 이야기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것이며 그의 사진은 마릴린 먼로의 36번째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촬영한 것으로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. 실러가 직접 쓴 글과 미공개 사진을 포함해 100장이 넘는 사진들은 우리를 먼로가 가장 빛났던 그 시절로 데려갈 것이다. 컬렉터 에디션(No. 251~1962)과 로렌스 실러가 사인한 사진 액자가 추가된 아트 에디션(No. 1~250)으로 발행됐다.



1962년 36세

영화 〈사랑할 때 버려야 할 것들〉 촬영장에서 마릴린 먼로

© Lawrence Schiller/ Courtesy of TASCHEN and Steven Kasher Gallery, 1962